

40년동안 남모르게 이웃사랑

고희님은 일광스님 61년부터 훈훈한 보살행



◁일광스님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들을 초청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스님이 40여년 동안 남몰래 자비행을 실천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서울 일광사 회주 일광스님은 지난 61년부터 어려운 절 살림을 절약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쌀, 반찬, 의복 등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을 41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나병환자나 정신병 환자는 물론 산간 오지의 독거노인까지 찾아

가 도움을 손길을 전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발견하면 수시로 방문해 건강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례를 치워주고 일광사로 영가를 모셔와 천도재까지 지내주고 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며

모두 전생의 형제 같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니 한 두 사람씩 돕게 됐고, 하루 이를 보시를 하다보니 어느새 40년이 넘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세수가 예수를 넘은 이후에도 직접 차를 몰아 전국을 다니며 자비행을 펴 추운 겨울에도 차 속에

서 자는 피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5년 전부터는 망우리 인근의 독거노인들을 모아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 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일광스님은 본인도 70이 넘는 노스님이지만 혼자 밥먹기 어려운 노인이 보이면 직접 음식 수발도 든다. 또한 4년 전부터는 쌀이 모이는 대로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 불우이웃 돕기로 기증하고 있다.

그래서 받은 공로에도 많지만 스님이 가장 자랑하는 보훈은 79년부터 가난한 사람과 맺은 인연을 사진책으로 모은 '일광 대장정'. 남모르

정신병·나병환자들에 도움의 손길 망우리 독거노인 수요일마다 무료급식

게 살피는 스님의 자비행을 수상(7)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부터 모아 벌써 사진책이 67권째다. "일광 대장정" 1백권을 완성시킬 때까지만 살고 싶다"는 스님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불쌍한 이웃을 도움 수 있기를 신도들은 기도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활기치는 템플스테이

5월 31일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막되자, 전국의 고찰들도 조용한 가운데 정성스럽게 외국 손님들을 맞고 있다. 월드컵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된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정부의 홍보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참가자가 적은 편이지만, 산사를 찾는 외국인들은 그만큼 여유로운 한국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행운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부안 내소사는 5월 26일 영국 토니 블레이 총리의 절친한 친구이

부안 범어사에서는 5월 30일 3명의 외국인이 1박2일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했고, 20여명이 예약을 한 상태다. 제주 약천사는 5월 22일부터 2일까지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에서 온 외국인 6명을 대상으로 2박3일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오는 18일까지 2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 조계사는 5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씩 6명의 외국인이 사찰문화 체험을 한다. 김제 금산사는 사찰 내에 총 7개의 방을 갖추고 외국 관광객 40여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고, 고창 선운사

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 해인사 방문

美대사·직원들 9일 사찰 1박 체험

33사찰 '월드인' 통해 300명 예약접수

자 공보담당 수석비서관인 벤저민 맨델스손 일행이 참석할 가운데, 1박 2일간의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해인사에서는 5월 24~29일 외국인 8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5일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코스타리카 대통령부부가 해인사를 방문하고, 9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가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다. 또 서울 봉은사는 5월 27일 4명의 미국인이 1박2일간의 사찰체험을 가졌으며, 현재 35명이 1박2일에서부터 4박5일까지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다.

는 9개실에 총 30여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 요청으로 확립사와 광수사가 추가로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가운데, 모두 33개 사찰이 숙박 예약시스템 '월드인' (www.worldinn.com)을 통해 300여명(5월31일 현재)의 예약접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개별 사찰들은 관광안내소와 여행사 등을 통해 추가로 접수한 수백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면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주요 사찰 여름수련회 일정

사찰명	대상(참가비)	일시(회수)	연락처
해인사	성인(8만원)	6/25-8/10(7차)	(055)932-7430
	중고생(6만원)	7/30-8/1	
통도사	성인(7만원)	7/13-7/31(4차)	(055)382-7182
	청소년(5만원)	8/2-5	
	어린이(3만원)	8/7-9	
승려사	성인(10만원)	7/7-8/8(4차)	(061)755-5325
	중고생(5만원)	8/11-14	
백양사	성인(6.7만원)	7/26-8/15(6차)	(061)392-7502
	대둔사	성인(9.12만원)	7/8-11(3차)
미황사	중고생(15만원)	7/25-8/1	(061)533-3521
	초등 4-6년	8/13-20	
굴굴사	1일 2.3만원	7/1-8/30	(054)744-1689
법장사	중고생(미정)	7/26-28	(02)971-0303
	어린이	7/18-21	
용주사	어린이(3만원)	7/21-23	(031)234-0040
	청소년	7/24-26	
길상사	성인(5만원)	7/27-29	(02)3672-5945
	가족(5만원)	7/21-24	
대원사	성인	7/28-8/7(2차)	(061)852-1755
	무료	매달 1, 3째 주말	
승광암	성인(5만원)	7/18-8/11	(061)843-8488
	불회사	고등학생이상(무료)	7/13-8/21(6차)
삼보사	성인(5만원)	7/18-8/18(4차)	(02)352-6406
	청소년(3만원)	8/5-7	
법주사	어린이(3만원)	7/26-28	(043)543-3615
	어린이(3만5천원)	7/17-30(2차)	
신흥사	어린이(2만5천원)	7/21-23	(031)357-2695
	청소년(3만원)	7/24-27	
백련암	성인(3만5천원)	7/23-30	(051)253-0277
	어린이	7/23-30(2차)	
성주사	성인	7/31-8/3	
	단기휴가(30만원)	8/4-7	
성주사	성인	8/6-8	
	어린이(2만원)	7/25-31(2차)	(055)382-7182

사찰여름수련회 참가자 접수

해인사등, 대둔·대원사는 주말수련 상설화

조계종 포교원, '관련정보센터' 개소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백양사 등 주요 사찰들은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화되는 등 어느 해보다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소 일찍 여름수련회 참가자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특히 대둔사와 대원사는 여름수련회와는 별가 분격화되는 등 어느 해보다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소 일찍 여름수련회 참가자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25일부터 수련대회를 여는 해인사는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현장이다'는 주제 아래 6 차례에 걸쳐 4박5일씩 성인 9백명, 2박3일간 중고등부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12일 오전 11시 '사찰수련회 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인터넷(www.pogyo.org)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련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석가족 불교청년회 간부 피살

개종식 준비중...괴한 총격 병원이송중 사망

불교 개종식을 준비하고 있던 석가족 불교청년회(Youth Buddhist Society, YBS) 간부가 지난 5월 20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주 칸노즈(Kannauj) 지역 바레푸르(Bareilly) 마을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저녁 10시 30분경 YBS의 지역회장인 비쉬와르 싱 보드(37, Bishwar Singh Baudh)씨는 6월 3일 '바레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교 개종식을 준비하기 위해 렉나우(Lucknow)로 가는 도중 바레푸르 교외 2Km 지점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바레푸르 YBS 사무국장인 라메스 보드(34, Ramesh Baudh)씨 역시 배와 왼쪽을 동시에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비쉬와르씨와 라메스씨는 모두 석가족 출신으로 3일 바레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종식을 준비하던 터였다. 인도 보드가는 김동훈 통신원

미륵종 임시중앙총회

법우회장 법성스님 선출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5월 27일 경기도 관음사(주지 법성)에서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했다. 25명의 중앙총회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중인 법우회장에 중앙포교원장인 대원사 주지 법성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법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된 법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스님들 모내기 울력



영축총림 통도사는 5월25일 오전 9시부터 경내 경작지인 장밭들에서 모내기 울력을 가졌다. 이날 모내기 울력에는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 종무소 국장 과장 스님, 선원, 강원 대종스님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석해 1백 마지기의 눈에 모를 심었다. 현문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정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모내기 울력을 했다"고 말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효사 육임강의록

출시

육임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동안 공부할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육임 전문가용을 여러권 쓰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 오던 동안 쉽고 빠른 입문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 효사 -

- ◆ 값 300,000원
- ◆ 입금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 ◆ 전화 : 02-993-8680
- ◆ 부산지사 : 051)851-2349

강의록 순서

- 기본편
- 입문편
- 활용편
- 전문편
- 형이상편
- 운명판단편
- 세밀정단편
- 길흉상담편
- 국수래정편
- 30년 월장편

좌정용 : 1,300,000원
 휴대용 : 1,500,000원
 증보판 : 350,000원

■ 육임래정비법역신편
 (전문가용)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 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일 아침 5시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의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현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한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실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협 813015-56-022193 정강재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